

이제는 말보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때



전 동 용
(대한양돈협회 회장)

전국 양돈인들의 명실상부한 대변지이자 양돈업계의 길잡이인 「월간 양돈」지가 창간 1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월간양돈」지는 근대양돈산업의 초창기인 '79년,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이 낮은 기술 수준과 정보부재속에 처해 있을때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후 「월간양돈」지는 지난 13년동안 양돈인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각종 양돈기술과 최신 양돈정보를 제공해와 우리나라 양돈산업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월간양돈」지는 양돈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익을 대변하는 한편, 관련업계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눈과 귀가 되고 양돈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향도가 되어 왔습니다. 이밖에도 국내외의 양돈흐름과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돈인들의 권익신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산업발전과 함께 「월간양돈」지도 계속 양적·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양돈업계에 없어서는 안될 전문지로서의 위치를 굳혔습니다. 「월간양돈」지의 성장이 곧 양돈산업 발전의 가늠자라 할 정도로 「월간양돈」지는 한국양돈산업의 산증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월간양돈」지가 오늘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본지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주신 전국의 양돈인들을 비롯하여 축산관련기관·단체·업계의 관계자와 집필진 여러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광고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의 결과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세계의 기존질서는 급변하고 있으며 양돈산업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실로 절박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휘몰아치기 시작한 UR태풍은 타결도 되기 전에 국내 쇠고기시장의 53%를 수입쇠고기가 차지하는 위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여파로 매년 50~60만명의 농민이 생업의 터전을 등지고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UR타결을 기다릴 것도 없이 우리나라는 BOP졸업에 따라 '97년까지 모든 농축산물을 개방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쇠고기협상에서 보듯 상대국들은 '97년까지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돈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87년 돼지통조림을 시발로 소시지, 식용설육 등이 개방되었고, '94년에는 냉장돼지고기가 개방예시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분뇨처리규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농촌의 인력난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를 거듭할수록 양돈어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 의사와는 관계없이 외국 돼지고기와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현시점에서 우리의 양돈산업이 외국과 경쟁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아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개방 및 국제경쟁과 관련하여 수많은 세미나와 심포지움, 좌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백가쟁명식으로 많은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의 촉박성 때문이라도 좋은 것은 하루빨리 정책으로 채택, 국제경쟁력을 길러줘야 할텐데, 소리만 요란할뿐 구체화는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한지도 몇년이 지났는데 돼지전용 도축장 하나 갖고 있지 않는 것이라든가, 생산비 절감을 부르짖으면서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배합사료의 관세·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꿈적도 않는 것 등이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수입개방과 관련해 거창한 구호보다는 작은 것일지라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들의 경영합리화와 사양기술 향상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확실한 방법은 배합사료 등 축산원자재의 관세·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자가 배합사료공장 설립 허용 등 정부의 의지에 따른 제도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만 해결한다면 해도 20~30%의 생산비 절감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전업농 집중 육성과 시설자동화 자금, 분뇨처리자금의 장기저리 지원, 도축·가공·유통시설의 현대화, 무허가축사 양성화 등이 시급합니다. 또한 UR타결에 대비해 생산자들이 스스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체 생산자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자조금제도의 시행도 하루빨리 앞당겨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양돈농가들도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생산기술을 개발,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 이제는 생산자 위주의 양돈에서 과감히 탈피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맛있고, 신선하고, 안전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데 전력투구해야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없는 생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는데도 과거와 같은 타성에 젖어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고는 국내 양돈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양돈인들은 과거의 의식을 과감히 전환해 세계속의 양돈에서 살아나갈 방안과 소비자 중심의 양돈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모든 지혜를 동원해야 하겠습니다.

창간 13주년을 맞는 「월간양돈」지도 이제는 구태에서 탈피, 시대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냉철히 파악하여 국제양돈사회에서 국내양돈이 낙오되지 않도록 정신적·기술적 안목을 넓혀주는데 보다 많은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양돈농가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대변은 물론, 관련업계와 호흡을 함께 하면서 최신 양돈정보 제공과 심층분석을 통해 양돈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선도하는 향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